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회) 제3편 천수대명(天授大命)

1) 1단계 성령 : 불성령(행2:1-4)
2) 2단계 성령 : 생수성령(요7:38)
3) 3단계 성령 : 이슬성령(호14:5-6)

二. 완성된 성령인 이슬은혜

1) 감로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증표
2) 감로 이슬성령은 완성된 성령

一. 성령(聖靈)의 3단계(三段階)

세 분의 주인공 중 첫번째로 출현하신 분이 박태선 영모님이다. 박태선 영모님의 출현을 시발로 다음 두 분의 주인공의 출현은 어떤 식으로 출현하여 삼성일체인출현된 구세주로 나타나시는가? 그 나타나신 완성자 구세주는 어떤 식으로 완성되시어 출현하시는지? 또 그 세 분의 주인공 중 한 분은 여인으로 출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가? 지금부터 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기로 하자.

1) 1단계 성령:불성령(행2:1-4)

박태선님은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남리 148번지에서 1917년 정사(丁巳)생으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술고래로 술을 먹고 와서는 어머니를 노상 때렸으므로 어머니는 그 시달림을 받고 늘 울며 삼삼하시면서 지내셨다. 박태선님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지냈다. 박태선님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외로움에 휩싸인 9살 소년은 매일 새벽에 울리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에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였다. 이후 새벽에 배긴, 낮에배긴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후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공장에 입사하여 병역 징집을 면할 수 있었다.

박태선님께서 일본에 가셔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십일조는 기본이고 십의 구조까지 헌금했다. 유명한 부흥강사의 집회가 있다면 만사를 제치고 참석했다. 극성스럽게 열심히 믿는 자 중 200여 명의 죽어가는 모습을 찾아야한다고 한다. 그 죽을 앞에서 천당 가는 모습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여명 중 서너 명만 빼고는 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은 분명 주님품에 안겨 천당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너 사람은 얼굴에 온화한 빛을 띠면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로 갈 시간이 됐다고 하면서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신앙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머물면서 더 적극적이 되었다.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연합군의 일본 폭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수도인 동경까지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 박태선님을 못견디게 한 것은 조선사람에게 가하는 극심한 차별대우였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판단한 박태선님은 1944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어느 교회로 나갈까 생각하다가 발길을 남대문교회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김치선 목사가 "너 태선이 아니냐"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끌려서 남대문교회에 몸담고 신앙하기로 하였다.

남대문교회에서도 열렬한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복을 돌려메고 노방전도를 늘 하였다. 서울 원효로에 철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돈을 안주머니 바깥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여 그 돈을 다 수금대에 넣은 후에 수금대를 돌려온 했다. 수금위원이었다. 그래서 박태선님은 "나는 십의 구조를 버렸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어느 날 이성봉 목사의 부흥집회가 있다고 알려왔다. 박태선님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고 작심을 하고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주야로 매달렸다.

사흘째 되는 새벽녘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덩어리가 박태선님의 전신으로 쏟아 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너무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렀다. 온 몸이 떨리면서 몸을 전부 태워 재로 만들어 날려보낼 것 같았다. 얼마 후에 좀 안정이 되어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얼굴과 온 몸은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움이 계속 되고 있었다.

<참고 사항>

이성봉 목사를 통해서 박태선님이 불성령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잘못이다. 박태선님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직접 역사하시어 이끄시는 것이다. 박태선님은 이성봉 목사의 집회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서건 때가 되어 이와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였을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를 낳아 키울 위대한 업적을 출현시키시는 천기 속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은사는 성경 사도행전 2장 1



전도관 초창기 때에 내린 이슬성신

절에서 4절에 있는 불같은 성령이다.

"오순절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어 크고 급한 바람같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같은 혀가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행 2:1-4)

위 사도행전의 불같이 임하는 성령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성령이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전부인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은 성령 중에 제 1단계의 성령인 것이다. 박태선님은 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어떻든 박태선님은 불같은 성령을 받은 후 온 몸을 태울 것 같은 뜨거움이 10일, 20일, 한달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뜨거움이 딱 끊겼다. 그러자 온 몸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하도 이상하여 기도 중에 생각하여 보니 하나님께 실수하여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을 깨달은 박태선님은 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매달리셨다. 한 일주일 통곡하며 매달린 끝에 처음으로 같이 온 몸을 뜨겁게 태우는 불 성신이 다시 연결되었다. 이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생활을 하니 뜨거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 5, 6개월 지속되던 뜨거움이 어느날 갑자기 또 다시 딱 끊겼다. 깜짝 놀라신 박태선님은 또 무슨 잘못을 한 줄 알고 긴장했으나 기도중에 제 1단계 성령의 역할이 끝이났음을 깨달으셨

다. 불의 성령은 죄를 태우기 위한 성령이다. 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태우면 뜨거운 불은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깜작 놀랄 일이 또 생겼다. 어느날 갑자기 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이었다.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불의 성령으로 어느 수준까지 죄를 해결했다 가도 다시 죄를 지으면 뜨거운 불의 성령이 다시 임하여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박태선님의 행적은 하나님의 회복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였다. 독자님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남사고 선생의 예언을 소개한다.

辰己聖君 正道合이 金剛山精運氣바다
진사성군 정도령 금강산정운기
北海島에 孕胎하야 東海島에
북해도 잉태 동해도
暫沈더니 日出東方雞鳴聲에 南海島로
잠침 일출동방계명성 남해도
건너와서 天授大命指揮 故로
천수대명지휘 고

紫雲島에 定座하사
자하도 정착

격암유록 (松家田 송가전)
진사성군 정도령은 금강산 정기로 운을 받아 삼팔이북인 북해도에서 잉태하여 동해도인 일본으로 잠침하였다가 때가 되어 일출동방 계명성에 남해도인 삼팔이남 한국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대명을 받아 총지휘하기 위하여 자주빛



希言自然

희언자연

도덕경 23장 해설

노자의 사상은 사람이 자연처럼 살 것을 말하고 있다. 노자는 천지자연의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사람의 삶의 거울로 삼는다. 사람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고고한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의 이상(理想)과 영원(永遠)을 꿈꾸며 동경하고, 땅은 인간이 밟 밟고 사는 현실과 직결되는 산과 들과 물과 나무들의 생장의 악동함을 보고 활기찬 삶을 소망한다. 슬퍼하고 고통 받으면서 유한한 생을 살아야만 하는 인간의 삶과 달리 자연은 말없이 자유하고 평화롭게 영원하게만 보인다. 사람은 이처럼 복잡한 삶과 비극적 짧은 생에서 벗어나 하늘과 땅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게 영원무궁토록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될 것이다. 비록 이 장에서는 짧막한 몇 문장의 비유지만 천지자연의 현상을 보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를 밝히 따져 내면의 참모습을 찾아 가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삶의 진수를 노래하고 있다.

希言自然(희언자연) : 자연은 말이 없다



자연은 말이 없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여 말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자연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飄風不終朝 暴雨不終日(표풍부중 조

폭우부중일) : 고로 회오리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돌연 내리는 비는 중일 내리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를 밝히면서 인간의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孰爲此(숙위차) : 이렇게 행하는 것은

누구인가?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의 그것이지만 우주 배후에 숨어 있는 생명의 실상의 작용은 누가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天地而不能久 又況於人乎!(천지이불능구 우황어인호) :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능히 이처럼 오래 가지 않는데 사람의 일에 있어서라!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들도 참 나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듯 인생의 일도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故從事而道者 同於道(고종사이도자 동어도) : 고로 도인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천지자연의 이치와 같은 도를 따라 행한다

도인은 바로 이러한 이치를 터득한 사람으로 어떠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을 살면서 천지자연처럼 살아가는 자이다.

德者 同於德(덕자 동어덕) : 덕이 있는 도인은 덕과 함께한다

이러한 이치에 순응하여 마음과 행실

박태선님은 안방 구들장을 뜯고 그 속에 숨었다. 비는 부슬부슬 오고, 후텁지근한 구들장 속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답답하였다.

너무 숨이 막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죽더라도 뛰쳐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로 참고 견뎌 나가던 중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구들장 밑이 시원해지는 것이었다. 아니, 구들장 밑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박태선님의 몸이 얼음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해지는 것이었다.

박하향을 한 바가지 쪼개서 밀어넣는 것 같은 진한 향이 코로,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또 코로 입으로 시원한 것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입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배로 흘러들어가서 온 전신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구들장 속에서도 몸은 날아갈 듯이 동동뜨는 것 같은 상쾌함을 느꼈다. 몸과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태선님은 문득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구들장 밑에서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박태선님은 또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거든 몰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애원하는 기도를 계속했다. 박태선님은 9살 때부터 둘째가라면 섭섭하다고 할 정도로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분이기에, 일본 동경에서도 유명하다는 부흥강사의 설교는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들어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한 터였지만 구들장 속에서 체험하는 것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의문을 가졌다.

박태선님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성경구절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나를 믿으면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자들이 받을 성경을 말씀하신 것이니"였다. 박태선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 구들장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 생수의 성령임을 깨달은 것이다.

박태선님은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불같은 성령은 다 알고 있지만 생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여 가르쳐 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와같은 생수의 성령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박태선님에게 나타나신 것이었다. 여쭙지 않았는가. 박태선님은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생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늘은 이분을 통하여 하늘의 구세주 출현의 길을 탄탄하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격암유록 (桃符神인 도부신인)
수도 끝에 먼저 출현하신 하나님 얼굴을 한 박태선님을 세상사람이 모른다 고 하거든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심승인에게 물어보시오.

이와 같이 예언된 첫번째로 출현한 영적 황제 박태선님이 어떤 식으로 두 분 하나님을 회복시켜 삼위의 하나님을 일체로 완성시키시기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2단계 성령:생수성령(요7:38)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다. 삼팔선이 무너지고 북한군은 물밀듯이 남한으로 공격해오고 한국군은 대항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후퇴를 계속했다. 북한군의 탱크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서울이 함락되었다. 박태선님은 미처 피난을 못갔다. 이북에서 월남한 예수교 장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히면 사형 당할 것이라고 생각된

로 역시 덕을 지닌 자다

자연의 이치와 같이 마음과 행실이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다.

同於失者 道亦失之(동어실자 덕역실지) : 도덕을 모르는 자는 역시 도와 덕을 떠나 사는 자이다

천지자연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를 거슬러 사는 사람이 도와 덕을 떠나 사는 역천자(逆天者)로서 멸망의 삶의 그것이라는 것이다.

도인의 삶은 천지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영원한 삶을 추구하나, 무도인의 삶은 인위적이고 구속받으며 고통 받으면서 유한한 불행의 삶의 결과를 낳는다. 도통을 추구하는 수도자가 하나의 참된 이치를 깨달아 천지자연과 같은 자유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사는 조그마한 인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